

여야, '김건희 특검법' 수정안 놓고 신경전

민주 '도이치·명태균' 압축...제3차 추천 비토권 부여 국힘 '수정안 반대' 단일대오...친한도 "이탈표 없다"

'김건희 특검법'의 수정안을 놓고 여야의 신경전이 이어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노종민 원내대변인은 12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수정 특검법은 크게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추가조사 개입 의혹과 명태균씨 관련 의혹을 수사 대상으로 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 중 명씨 관련 의혹은 ▲대선 경선 여론조작 의혹 ▲국회의원 재·보궐 등 선거 개입 의혹 ▲창원국가산업단지 선정 등 이권·인사개입 의혹을 들여다보게 할 것이라고 노 원내대변인은 설명했다.

민주당이 지난달 발의한 세 번째 김 여사 특검법은 근래 제기된 김 여사 관련 논란을 전방위적으로 수사한다는 취지를 담아 수사 대상이 14개에 달했다.

하지만 여론의 이탈표를 끌어내야 한다는 실리적 판단에 따라 김 여사 명목

가방 수수 의혹, 대통령 집무실·관저 이전 계약 개입 의혹, 양평고속도로 노선 변경 개입 의혹 등은 제외하고 수사 대상을 주었다.

특검 추천 방식은 대법원장이 4명을 추천한 뒤 야당이 2명을 추리고 대통령이 1명을 추천하는 '제3차 추천' 방식으로 하되 대법원장이 추천한 후보가 부적합하다고 판단하면 야당이 재추천을 요구할 수 있는 이른바 '비토권'을 추가할 예정이다.

민주당은 이 같은 수정안을 오는 14일 본회의에 올려 표결에 부치고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다면 28일 재의결 투표까지 밀어붙인다는 계획이다.

김용민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원내대책회의에서 "검찰이 어제 명씨의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정치자금법 위반



발언하는 여야 원내대표

1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 참석한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왼쪽)와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가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혐의만 적용했고 윤 대통령과 김 여사 관련 혐의는 모두 뺐다"며 "전향적인 꼬리 자르기로 검찰이 책임을 포기한다면 특검으로 철저하게 수사하게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민주당 내 '명태균 게이트 조사단' 소속 염태영·김기표·허성무 의원은 이날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에서 "오는 15일 창원 산단 현장을 방문해 산단 선정 전

후 토지 거래자의 실명을 확인하고 관련 제보자도 만날 것"이라며 여당을 압박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추진하는 '김건희 특검법 수정안'에 대해 "꼼수 악법"이라며 반대 입장을 명확히 했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특검을 상대 정당의 분열을 조장하는 공격 카드로 악용하는 건 매우

지급한 정치 행태"라며 "꼼수 악법을 반드시 막아내겠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이재명 대표의 1심 판결 직전 특검법 수정안을 낸 데에는 '여권 갈라치기' 의도가 깔려 있다고 보고 있다.

김여사 문제 해법을 놓고 갈 등 양상을 빚었던 친윤(친윤석열)·친한(친한동훈)계 간의 틈을 파고드는 전략이라는 것이다. 지난 달 4일 두 번째

김 여사 특검법에 대한 국회 재표결에서 여당 이탈표가 4표 나왔지만, 친한계는 이번에 이탈표가 최소화될 것이라며 민주당의 갈라치기 시도를 경계했다.

친한계 신지호 전략기획부총장은 "당의 동요는 1도(전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고, 박정훈 의원도 "이탈표 숫자가 늘어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본다"고 예상했다. /김진수 기자

'대한민국 정부 박람회' 오늘 광주서 개막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91개 공공부문 사례 전시 광주, 타지자재와 차별화된 복지·청년 정책 홍보

정부 혁신과 디지털플랫폼정부 성과를 공유하는 '2024 대한민국 정부 박람회'가 13일부터 사흘간 광주에서 열린다.

'내일을 위한 정부혁신, 함께 하는 디지털플랫폼정부'를 슬로건으로 열리는 박람회에는 중앙부처 27곳과 지자체 20곳, 민간기업 52곳 등 총 131개 기관이 참여해 현 정부 출범 2년 반 동안 거둔 정부 혁신 성과를 돌아본다.

13일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개막식을 시작으로 행사장에 마련된 부스에서는 91개 공공부문 혁신 사례가 전시된다. '편리한 서비스', '똑똑한 정부', '안전한 사회' 등 3개 구역으로 나눠 진행되는 전시에서는 늘봄학교, 인공지능(AI) 기반 특허심사, 재외국민 119응급의료 상담서비스 등 정부가 내놓은 우수 혁신 사례를 만나볼 수 있다. 디지털플랫폼정부 구현을 위해 협력

해온 네이버 클라우드, KT, SKT 등 26개 민간기업의 혁신 사례도 박람회장을 찾는 관람객을 맞는다.

특별부스에서는 행안부의 공공 디지털 지갑과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DPG)의 재외국민 신원 확인 등 국민드림프로젝트 과제, 대한민국 우주시대를 열 우주항공청 및 항공·우주 분야 소개 등이 있을 예정이다.

박람회 개최지인 광주도 다른 지자체와 차별화된 우수 복지·청년 정책 등을 홍보한다.

관람객은 행사 기간 메타버스 기반의 차세대 군사 훈련 및 해양안전 체험, 증강현실(AR) 기술을 활용한 도시관광 및 드론 체험 등에 참여할 수 있다. 박람회 마지막 날인 15일에는 대국민 보고회가 열린다. 이 자리에서는 AI와 빅데이터 등 첨단기술로 일궈낸 대한민국 정부의 미래상을 제시한다. /김진수 기자

보고회에는 이상민 행안부 장관과 고진 DPG 위원장, 중앙부처·지자체·공공기관 기관장, 일반 국민 등 250여명이 참석한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속적인 정부 혁신을 당부하는 축하 영상을 전할 예정이다.

아울러 박람회 연계행사로 '정부혁신 왕중왕전' 본선 및 시상 등이 열리고 올해 프리아구 통합 우승을 달성한 KIA 타이거즈의 팬 사인회, 치어리딩 공연 등 이벤트도 마련된다. /김진수 기자

尹, 14-21일 APEC·G20 참석

윤석열 대통령이 14-21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와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의 참석을 위해 개최국인 페루와 브라질을 각각 방문한다.

윤 대통령은 다자회의의 참석 등 5박8일 해외 순방 일정을 계기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과의 회동을 추진하고 다자회의의 기간 한중·한미일·한일 정상회담을 개최하는 방안도 논의 중이다. /김진수 기자

민주당 KDLC "제1야당 대표에 치졸한 탄압"

무죄 판결 여론전... "100차례 이상 출석, 법정 연금 상태" 비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와 위증교사 혐의에 대한 1심 선고일이 각각 오는 15일과 25일로 예정된 가운데 민주당에서 이 대표의 무죄 판결을 촉구하는 여론전이 이어지고 있다.

민주당 전국자치분권민주지도자회의(KDLC)는 지난 11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미 수백 번 압수수색과

구속영장 청구 받았고, 일주일에 3-4일씩 100차례 이상 법정에 출석하며 사실상 법정 연금 상태로 원내 제1당 대표로 수행하고 있다"며 "대한민국 헌정사에 제1야당 대표가 이렇게 치졸한 탄압을 받은 적은 없다"고 주장했다.

KDLC는 "몇 년째 계속되는 도돌이표 수사에 국민들도 이제 지긋지긋하

다는 탄식을 내뿜을 지경"이라며 "이재명 대표는 무죄다. 정치검찰의 교활하고 무자비한 탄압을 막아달라"고 요청했다.

KDLC 상임고문인 민주당 황명선의원은 "얼마나 대한민국의 인권과 민주주의가 유린당했으면 이 자리까지 와서 이 대표의 무죄를 촉구하겠나"라며 "검찰독재 정권에 맞서 대한민국이 살아있음을 사법부가 꼭 보여주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KDLC에는 민주당 소속 지방자치단체장, 도·시·군·구의원 등이 소속돼 있다. /김진수 기자

혁신당 "20일 광화문 광장서 尹탄핵소추안 공개"

발의에 국회 과반 이상 동의 필요...민주당에 협조 촉구

조국혁신당은 오는 20일 광화문 광장에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 초안을 공개한다고 12일 밝혔다.

신장식 원내대변인은 이날 의원총회 후 기자들과 만나 "광화문 광장은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 열기가 모였던 곳"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다만 12석의 조국혁신당이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을 발의하려면 더불어민주당이 협조해야 한다.

대통령 탄핵소추안의 경우 국회 재적의원의 과반(150명 이상)이 발의해야 하기 때문이다. 황은하 원내대표는 의원총회에서

"(윤석열 정부는) 정상적인 국정 운영이 불가능한 상태인데, 그런데도 조기종식을 끌어낼 수 없다"며 국회는 크나큰 과오를 저지르는 것"이라며 "어느 때보다 긴밀한 협력이 필요하다"고 민주당의 협조를 촉구했다.

민주당은 윤 대통령 탄핵에 대해 당 차원에서는 아직 거리를 두고 있다.

한편,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진보당, 사회민주당 소속 개별 의원들이 참여한 '윤석열 탄핵 의원연대'는 13일 공식 출범한다. /연합뉴스

파크골프 2코스 지도자과정 교육생 모집

- 모집기간: 수시/매월 30명
- 교육접수: ▶교재 배송 → 1차 이론 자가학습 → 1차 시험
→ 2차 실기 1:1교육(매주 2회 이상) → 실내파크골프연습장
→ 파크골프장 순회 실습 3회 이상 → 2차 실기시험 18홀 라운딩
- 접수계좌: 농협 351-1286-9685-63 (파크골프연합회)
- 교육비 및 응시료: 교재비 + 골프장 실습비 + 강사료 / 합격시까지 28만원
- 접수: 010-9163-7897 / Tel. 062-369-0070

파크골프 무료교실 (취미반)

- 남녀노소 누구나 매주 12명 한정 모집
- 왕초보 ~ 골프장 실습(실내 연습장 완비)
- 기본자세·라운딩 실습(실내스크린골프 20개구장)
- 골프채·골프용품구매자 각종 혜택 부여

※ 본 연합회 용품 매장 방문 환영, 실내파크골프장(스크린) 운영

상담문의 : 010-9163-7897 / Tel. 062-369-0070

IPGF 국제파크골프연합회 / 파크골프용품판매전시장 **위치** 광주광역시 서구 상무대로 1089
(새우리병원 입구, 화정새마을금고 4층 농성역 4번 출구 / 추선회관 방향)